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여러분은 실수한 것을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컵을 깨뜨렸는데 모르는 척하거나, 잘못을 했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바라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은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는 양이 아주 많았지만,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 뿐인 어린 양을 빼앗아 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하셔서 나단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잘못했을 때 변명하거나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세요.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에게도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잘못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어린이가 되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무엘하 12:1~12절 다 같 이

설 교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못했을 때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나요?

2.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